

가족 공동 관리형 사진 공유 모바일 앱 UI 개발

A Co-family Managerial Photo Share Mobile App UI Development

정유미*, 최종훈**

이화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 UX디자인전공*, 이화여자대학교 조형예술대학 영상디자인전공**

Yu-Mee Chung(jjongga1110@naver.com)*, Jong-Hoon Choe(deadant@ewha.ac.kr)**

요약

최근 소규모화 된 가족 형태는 자녀의 사진을 가족들과 공유하는 행태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주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촬영하고, SNS나 문자 메시지를 통해 가족들 사이에 아이 사진을 공유하거나 모바일 커뮤니티 개념의 공간에 자녀 사진을 올려 공유하는 행태가 두드러지고 있다. 이렇듯 스마트폰을 이용한 사진 촬영과 공유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지만 문자 메시지나 SNS를 통해 사진을 주고받을 경우 백일이나 돌잔치처럼 가족 구성원들이 각각 사진을 찍는 이벤트 발생 시, 다양한 아이의 사진을 일일이 서로 전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진을 한데 모아서 보는 것이 어렵게 된다. 또한 출처가 제각각이므로 사진 관리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가족 구성원이 각각 찍은 사진들을 특정한 공간에 모아 간편하게 정리하고, 가족구성원이 직접 참여하여 모바일 앨범을 제작하는데 최적화된 UI를 제안하였다.

■ 중심어 : | 공유 | 스마트폰 | 가족 | 사진 관리 |

Abstract

The recent small-scaled family form is making a great influence on sharing pictures of their children with family as well. As parents are usually taking pictures of their children with their smart-phones, the form of sharing pictures with families through SNS or text messages or uploading pictures of their children in mobile mini-homepage is becoming prominent these days. But when events of an each family member taking pictures occur, such as in 'the hundredth day party' or 'first birthday party' and exchange them through text messages or SNS, it would be difficult to gather their children's picture and view them all together other than the ones that they took themselves as it is difficult to send each and every picture. Also, another problem of managing pictures occur because the source of picture all differ from each other. Therefore, to solve these problems, this study intends to suggest a co-family managerial photo management mobile application UI for family members to participate in gathering and organizing pictures that they took with their own smart-phones in a specific space and produce a mobile album.

■ keyword : | Sharing Pictures | Smart-phones | Co-family | Managing Pictures |

I.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1990년부터

2012년까지 13년 동안 4인 가구의 비율이 38.6%에서 35.3%로 감소했으며, 노인이 없는 가구는 같은 기간 85.6%에서 70.4%로 감소했다[1]. 이는 점차 가구가 소규모화 하는 방향으로 변화한다는 것을 보여주며, 이러

접수일자 : 2014년 01월 06일

수정일자 : 2014년 03월 24일

심사완료일 : 2014년 03월 25일

교신저자 : 최종훈, e-mail : deadant@ewha.ac.kr

한 가족 형태의 변화는 자녀의 사진을 가족들과 공유하는 행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예전에는 자녀의 사진을 인화하여 공유하거나 가족들이 한데 둘러 앉아 앨범을 함께 보는 형태의 공유가 일반적이었으나 최근에는 SNS나 문자 메시지를 통해 사진을 공유하거나 카카오톡 스토리와 같은 모바일 커뮤니티 개념의 공간에 자녀의 사진을 올려 공유하는 행태가 두드러지고 있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사진 촬영과 공유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있지만 문자 메시지나 SNS를 통해 사진을 주고 받을 경우 백일이나 돌잔치처럼 가족 구성원들이 각각 다른 각도나 시선에서 찍은 다양한 아이의 사진을 일일이 서로 전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본인이 찍은 아이 사진 외에 아이 관련 사진을 모아서 보는 것이 어렵게 된다. 또한 사진의 출처가 제각각이므로 사진 관리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가족 구성원이 제각기 찍은 사진들을 특정한 공간에 모아 간편하게 정리 할 수 있고 가족이 직접 참여하여 모바일 앨범을 제작할 수 있는 가족 공동 관리형 사진 공유 모바일 앱 UI를 제안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방법과 범위

사진 공유 및 사진 분류 방법을 다룬 연구와 관련 자료들을 통해 가족구성원들이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아이의 사진을 공유할 때 나타나는 문제점 및 사회적 요구에 의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선행 연구 및 관련 자료 분석과 사용자 조사를 통해 사용자 요구 사항을 도출하고, 자녀 사진 앨범 및 기타 사진 관리와 연관된 모바일 앱 서비스를 벤치마킹하였다. 또 리서치 및 분석의 결과를 바탕으로 그에 따른 3가지 주 기능을 정의하여 최종적인 UI 설계와 와이어프레임을 제시하였다.

II. 선행 연구 및 관련 APP 분석

1. 스마트폰 이용 행태에 대한 연구사례 검토

스마트폰 이용 행태에 따른 연구사례는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검토하였다. 먼저 스마트폰을 이용해 사진을 촬영하는 행태에 대한 연구 사례이다. 마케팅인사이트가 스마트폰 보유자 3만8173명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카메라 이용 행태를 조사한 결과, 스마트폰 보유자의 절반은 주 3회 이상 스마트폰 카메라를 사용해서 사진을 촬영한다고 답했고, 무엇을 주로 찍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가족사진을 촬영한다가 43%, 본인(셀카) 39% 등 순이었다[2].

다음으로 살펴본 사례는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가족들이 특정한 공간 안에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질 때의 행태를 알아보기 위한 사례들이다. 모바일 앨범이라는 특정 공간에서 가족 간의 사진 공유 및 댓글 기능을 통해 동질감과 공감대 형성의 기회가 많아짐에 따라 서로의 유대감을 높여줄 수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가족들이 가족 간의 대면 접촉을 통한 커뮤니케이션 이외에 이동통신을 이용한 커뮤니케이션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변화의 시대에 맞춰 가족관계를 유지하고 나름의 집단 정체성을 형성하기 위한 전략적 수단이기도 하는 점을 김종길, 박수호(2010)의 “디지털시대의 ‘가족혁명’: 신화인가 현실인가?”에서 언급하고있다[3].

2. 사진 관리 방법에 관한 연구사례

장철진(2010)은 “그룹 사용자를 위한 대용량 디지털 사진 관리 방법론”에서 기존에 발표된 디지털 사진 관리에 대한 연구 대부분이 특정 개인의 사진 데이터에 대해 클러스터링¹⁾을 수행하거나 특정 사진을 검색하는데 중심을 두고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4]. 이 연구에서는 기존의 사진과 함께 제공되는 EXIF²⁾[5]와 같은 부가

1) 집단화 [clustering, 集團化], 서로 근접한 위치 또는 같은 장소에 있는 복수의 입출력 장치나 단말 장치 등을 하나의 집단(다발)으로 집중 제어하여, 이들 장치 상호 간에 통신할 수 있고 단일 통신 채널을 공유하여 주 컴퓨터와 통신할 수 있게 하는 기술. 유사성과 같은 어떤 개념을 바탕으로 데이터를 몇 개의 집단으로 분류하는 방법이다. 문헌 검색이나 유형 인식을 비롯하여 생물학, 의학, 경영학 등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취급하는 데이터의 성질이나 분류의 목적에 따라 많은 방법이 있다.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858059&cid=391&categoryId=391, 네이버 IT용어사전,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2) 촬영시각을 비롯한 카메라의 셔터스피드, 줌, 플래시 상태, ISO, 화이트 밸런스 설정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는 JEIDA에서 만든 표준 메타데이터 규격으로 거의 모든 카메라 제조사가 이를 따르

정보에 기반 한 클러스터링 방법 외에 사진관리 기능을 그룹 사진으로 확장하여 사용자의 사진 관리상 요구 충족을 위한 클러스터링 방법을 제시하였다.

또한 최재용(2012)의 3인은 “스마트폰에서 계층 모델 기반의 사진 자동 분류 및 사진 탐색기”에서 PC에 비해 제한된 처리 능력과 디스플레이 크기를 가진 스마트폰에서 날짜/시간, GPS 정보를 추출한 뒤, 계층 모델을 생성하고, 계층 모델에 따른 사진 분류가 가능한 방법들에 대한 연구를 통해 스마트폰 내에서의 효율적인 사진 분류 방법을 제안 하고 있다[6].

앞선 두 연구를 통해 스마트폰에서도 효과적인 사진 클러스터링과 분류가 가능하다는 기술적 효용성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특히 가족 구성원들이 각각 다른 종류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아이의 사진을 촬영한 후 특정한 공간에 대량의 사진들이 모였을 때 이를 효율적으로 분류, 앨범에 적용 시킬 수 있는 기술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관련 APP 분석

표 1. 관련 APP 분석표1

앱 형태	작성 형식	사진 관리 방식	제시된 템플릿	
베이비와	팔로우, 팔로잉 기능이 있는 모바일 성장앨범 앱	부모의 메인 페이지 내부 게시판	폰 내부 저장 사진을 앱 내부로 불러들임	1가지
SN Diary 베이비 키즈	가족 사진 일기 앱	게시판	폰 내부 저장 사진을 앱 내부로 불러들임	1가지
Tidy	사진 정리 및 관리 앱	각각의 앨범 형식	APP에서 폰 내부 전체사진 관리 가능	3가지
스토리 박스	모바일을 이용한 앨범 제작 앱	웹을 이용한 포토북 제작 형식과 유사	카카오 스토리나 폰 내부 저장 사진을 불러들임	1가지

고 있고 휴대폰 사진에서도 EXIF의 일부 태그 정보를 제공한다[7].

표 2. 관련 APP 분석표2

공유형태 및 방법	작성 후 보기 형태	장점	단점
베이비와 팔로우 및 공개 카페 공유나 SNS 공유		자녀별로 앨범을 나누어 관리할 수 있음	부모 중 한사람만이 앨범 작업에 참여 가능
SN Diary 베이비 키즈 앱으로 초대 및 추가한 가족들과 공유 가능		정보 페이지에서 참여 가족관계 확인 가능	자녀별 구분 없이 새끼들이 순서대로 올라오며 조작이 어려움
Tidy 공유 불가		사용자 선호에 따라 그룹화 가능 사진의 EXIF정보 확인이 가능	앱 내부로 불러들인 후 사진 삭제가 불가 어려운 조작법
스토리 박스 공유 불가		조작이 쉽고 결제까지 간편함	카트에 담은 후 내용 확인이 불가 제시된 템플릿이 하나 밖에 없음

위의 4가지 앱을 분석했을 때 나타난 장단점들을 통해 사진 정보에 따른 자동 정렬 기능이 필요하다는 것과 단순 거리별 정렬이나 사진 모양별 방식이 아닌 사용자가 직접 선정한 의미 있는 분류법을 기준으로 사진을 분류할 수 있는 기능의 필요성을 찾을 수 있었다. 또 다양한 연령층의 가족들이 함께 사용해야 하므로 복잡하지 않은 단순한 UI설계가 필요하다는 점과 단일 사용자가 아닌 가족 중심의 공유 공간 및 기능이 필요하다는 기획 요소들을 찾을 수 있었다.

III. 사용자 조사

1.1 사용자 대상 선정 및 조사 내용

가족 공동 관리형 사진 관리 앱에 대한 니즈를 조사하고 그에 따른 UI 디자인 방향을 수립하고자 20~30대의 부모 중 미취학 또는 초등학교 자녀를 둔 6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가 가족의 사진 공유 및 관리와 간편한 앨범 인화를 위한 앱으로 부모 이외에 조부모나 친척에 대한 데스크 분석 및 조사가 필요하나 대상 선정에 위와 같이 제한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사용자 인터뷰 전 파일럿 인터뷰를 통한 아이 사진 공유 및 사진 관리에 대한 조사에서 부모와 조부모, 친척간의 요구사항이 큰 차이점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또 김원(2012)과 최두진, 정부만(2012)의 실태조사에서 최근 50대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이용 빈도가 2010년 38.3%에서 2011년 40.8%로 증가하고[7] 50대와 20대의 정보화 사회에 대한 적응력 및 종합 격차가 2010년 대비 1.5%가 감소[8]하는 추세라는 점에서 20~30대 부모나 친척들과 조부모의 역할별 앱 사용성과 데스크 별 차이점은 배제하였다.

사용자 조사를 통해 스마트폰으로 자녀의 사진을 촬영한 후 관리하는 방법 및 부부를 비롯한 다른 가족들과 사진을 공유하는 방법, 백업이나 돌과 같은 특정 이벤트가 있을 때 찍은 사진을 관리하는 방법 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조사 대상자의 인적 사항은 [표 3]와 같다.

표 3. 사용자 조사 대상

NO.	연령	성별	자녀	직업
1	29	여	1남 1녀	전업주부
2	39	남	1남 1녀	철강회사 근무
3	34	여	1녀	의류 디자이너
4	30	여	1남	제과회사 근무
5	34	여	1녀	전업주부
6	34	여	1남	웹 디자이너

1.2 사용자 조사 결과

표 4. 사용자 인터뷰 질문 문항

	질문 문항
사진 정리 및 관리	자녀의 모습을 주로 무엇을 이용하여 촬영하는가? 사진을 촬영한 후 어떻게 보관하는가? 촬영된 사진은 어떻게 구별하여 보관하는가? 특별히 사용하는 사진 관리 프로그램이 있는가? 촬영한 사진을 보관할 때 불편한 경험이 있는가? 아이 사진을 보고 싶을 때 주로 무엇을 이용하는가? 스마트폰에 저장된 아이의 사진은 총 몇 장인가?
자녀 사진을 찍는 목적	1. 주로 언제 자녀의 모습을 촬영하는가? 2. 가장 많은 사진이 발생하는 날은 언제인가? 3. 가장 간직하고 싶은 아이의 모습은 무엇인가?
사진 공유의 목적 및 방법	촬영한 자녀의 사진을 누구와 공유하는가? 사진을 공유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사진 공유는 어떠한 방식을 통해 하는가? 다른 사람이 촬영한 자녀의 사진은 어떻게 공유 받는가? 사진 공유 시 가장 불편했던 점은 무엇인가?
사진 인화 및 앨범의 필요성	1. 촬영한 자녀의 사진을 얼마나 자주 인화하는가? 2. 인화된 사진은 어떻게 보관하는가? 3. 자녀의 사진을 앨범의 형태로 제작해 본적 있는가? 4. 인화된 사진 앨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5. 사진 앨범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이유는 무엇인가? 6. 필요성은 있으나 앨범 제작을 하지 못할 경우 이유는 무엇인가?

표 5. 사용자 인터뷰 결과

	사용자 인터뷰 문항별 %
자녀 사진촬영 주요 매체	스마트폰과 디지털카메라 모두 주로 사용 66.6% 스마트폰만 주로 사용 33.4%
스마트폰에 저장된 아이 사진 수	1500장 이상 16.7% 1500장 미만 1000장 이상 50% 1000장 미만 500장 이상 33.3%
사진 보관 방식	네이버N드라이브와 같은 시스템 이용 16.6% 컴퓨터 하나의 폴더에 몰아서 보관 66.8% 외장 하드 이용 16.6%
사진 그룹화 방법	이벤트 별로 정리 16.6% 스마트폰이나 카메라의 기본 설정인 날짜별 83.4%
사진을 가장 많이 찍게 될 때	처음으로 무언가를 시작했을 때 50% 100일처럼 특별한 날 50%
가장 간직하고 싶은 자녀 사진	예쁜 것할 때 33.3% 가족끼리 나란히 누워 있는 모습 10% 성장할 때의 모든 모습(항상) 60%
사진 공유 대상	조부모, 자녀의 이모나 외삼촌 등의 친척, 남편(아내) 100%
사진 공유 목적	아이의 성장 모습이 궁금해 사셔서 16.7% 시댁과 친정 식구들이 모두 멀리 살기 때문에 50% 나만 있을 때 한 예쁜 모습을 보여 주려고 33.3%
사진 공유 방법	특별히 공유하지 않음 7.75% 싸이월드 7.75% 카카오톡 23% 사진 인화 23% 카카오톡 및 메신저 서비스 38.5%
최근 3년간 사진 인화 빈도	(최근 3년의 제한은 조사 대상자 자녀의 연령 기준) 1년에 1~2회 50% 1년에 3~4회 33.3% 6개월에 1회 16.7%
사진인화의 필요성	낮음 16.7% 높음 50% 보통 33.3%
인화하지 못하는 이유	필요가 없어서 16.7% 시간이 없어서 33.3% 사진의 양은 너무 많아 정리하지 못해서 50%

조사 결과를 통해 얻어진 사용자의 니즈는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낼 수 있다. 첫 번째는 스마트 폰의 보급 이후 부모들이 자녀의 사진을 손쉽게 어디서든 촬영할 수 있게 됨으로써 사진의 양이 이전보다 훨씬 많아져 자신의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는 방대한 양의 사진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었다. 두 번째는 자녀의 사진 만큼은 인화하여 앨범으로 만들고 싶지만 시간상의 문제나, 만들기 복잡한 과정 등의 문제로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는 점이었다. 세 번째는 소규모화 된 가족의 형태로 인해 조부모나 삼촌, 이모 등의 가족들이 자주 보지 못하는 손주나 조카의 모습을 자주 보고 싶어 하고, 그들의 성장 과정도

공유하고 싶어 하는 마음을 가지고는 있으나 사진을 공유하는 행위가 문자나 SNS와 같이 제한된 범위 안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과 타인과 본인이 촬영한 매체가 다를 경우 사진을 저장할 때 번거롭다는 점에서 가족끼리 사진을 쉽게 공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니즈 및 요구 사항을 파악할 수 있었다.

IV. 모바일 APP 기획 및 디자인

1.1 APP 컨셉

사용자 조사를 통해 얻어진 결과를 통해 기획한 앱은 가족 구성원이 함께 참여하여 만들어가는 형태의 '가족 공동 관리형 사진 공유 앨범 모바일 앱'이다. 사용자들이 해당 앱을 설치하고, 초대로 생성된 가족 그룹이 서로 찍거나 보유한 사진을 공유하여 하나의 앨범에 넣을 수 있고, 하단에 배치된 인화하기 버튼을 통해 언제든지, 누구든지 만들어 놓은 앨범을 인화 및 결제할 수 있다.

표 6. 사용자 조사 결과를 통한 특화 기능

사용자 니즈	특화 기능
스마트폰에 저장된 방대한 양의 사진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느낌	〈이벤트별 앨범 생성 기능〉 (각 이벤트별 사용자가 선택하여 사진을 정리하고 빈 앨범의 형태를 미리 제공 함으로써 사진을 찍으면 바로 앨범에 넣을 수 있는 기능)
인화된 앨범 형태를 원하지만 시간상, 제작의 복잡성 등의 문제로 만들지 못함	〈인화 앨범 제작 기능〉 (3개의 템플릿이 주어지고, 그 안에 사용자가 직접 사진을 배치, 글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하단 바에 인화하기 버튼을 배치해 언제든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 앨범 1개당 사진 30장, 글은 60개 작성 가능)
부모뿐만 아니라 조부모, 삼촌, 이모 등의 가족들도 아이의 성장 과정을 함께 공유하고 싶어 함	〈앨범 공유 기능〉 (하나의 앨범을 기준으로 가족들의 공유가 가능하고 공유 설정 범위를 사용자가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

1.2 APP 설계

나의 책장, 가족, 사진 정리함, 앨범 인화, 설정으로 이루어진 5개의 메인 메뉴는 하단 탭바에 위치하였다. 메인 메뉴 하위의 카테고리는 총 11개로 구성되었고 모

두 4 depth가 넘지 않도록 설정되었다[9]. [그림 1]은 해당 앱의 메뉴 구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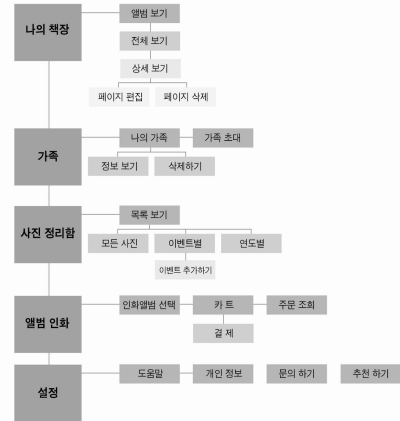


그림 1. 가족 공유 앨범 APP 메뉴 구조도

사용자의 앱 이용 목적을 촬영한 사진 분류 및 정리, 앨범 만들기 및 공유, 인화 앨범 제작과 같이 크게 3가지로 보고 작성된 태스크 플로우는 [그림 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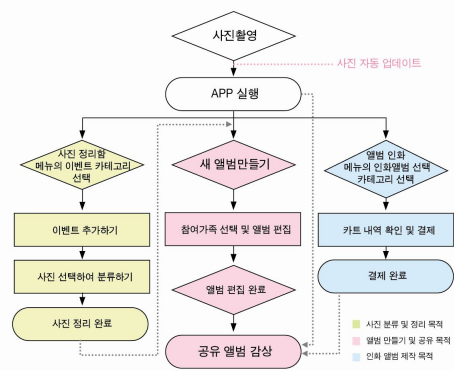


그림 2. 가족 공유 앨범 APP 태스크 플로우

1.3 APP 메뉴별 상세 기능 정의

앱의 하단 메인 메뉴 중 나의 책장은 내가 보유한 앨범 전체를 보여준다. 회원가입의 과정을 거친 후 최초로 앱을 실행하게 되면 [그림 3]과 같이 이벤트별로 생성되어 있는 빈 앨범 화면이 보여 진다. 빈 앨범은 '드디어 뒤집다', '첫 걸음마', '100일을 축하해', '첫 돌을 축하

해오'의 4개 이벤트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는 사용자 인터뷰에서 나온 결과를 토대로 자녀의 사진을 가장 많이 찍게 되거나 간직하고 싶은 이벤트를 선별하여 작성되었다. 이미 제작되어 있는 빈 앨범은 추가로 앨범커버를 꾸미거나 참여 가족 초대, 사진 편집 등의 작업이 바로 가능하다.



그림 3. 로그인 후 APP 최초 실행 시 화면

새로운 앨범 추가를 원할 경우 (+) 버튼을 터치하고 참여가족 설정, 앨범내부 템플릿 설정, 앨범 커버 및 제목 설정의 과정을 차례로 거친 후 앨범 편집을 통해 내부 글이나 사진을 편집할 수 있다.

수 있게 되는데, 이는 사진 정리 관련 앱과 사진 편집 앱 등의 유사 앱 분석과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나온 결과를 토대로 설정하였다. 이미 만들어진 앨범 중 하나를 보거나 추가 편집하고 싶을 경우 앨범 하나를 선택하여 터치하면 그림 4의 왼쪽 화면이 나타나고 해당 화면에서 현재 보고 있는 앨범의 참여자가 몇 명인지와 앨범이 어떤 템플릿을 기준으로 만들어 졌는지 왼쪽 상단 아이콘을 통해 한눈에 확인 할 수 있다. 앨범 내부 사진과 글을 보고 싶거나 편집하고 싶을 경우 한 번 더 중앙에 위치한 앨범을 터치하면 그림 4의 오른쪽 화면처럼 앨범 전체보기가 가능하다. 상세 내용 확인이나 편집을 원할 경우 해당 페이지를 터치하면 된다.



그림 5. 선택한 앨범 보기 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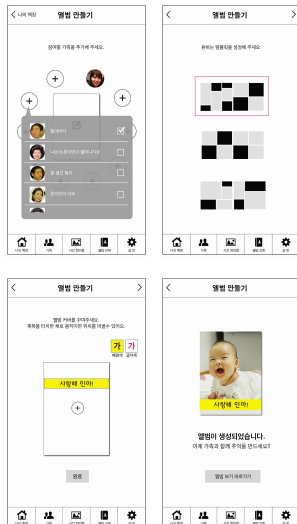


그림 4. 새로운 앨범 생성 과정 화면

[그림 6]은 앨범 상세 보기 진입 후 페이지를 편집하는 화면으로 사진 및 글을 추가로 작성하거나 삭제할 수 있다. 페이지에서 사진을 추가할 때는 사진 정렬함에 분류된 모든 사진, 연도별, 사용자가 지정한 이벤트별 카테고리에 따라 사진을 불러올 수 있다.



그림 6. 앨범 상세보기 및 페이지 편집 화면

앨범 한 장에 들어가는 사진은 총 5개, 글은 10개이므로 앨범 한권에 총 30장의 사진과 60개의 글이 들어 갈

[그림 7]은 하단 탭 중 가족 정보를 볼 수 있는 카테고리 사용자의 초대나 추가에 의해 이루어진 가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또 해당 가족이 나와 함께 참여하고 있는 앨범에 대한 이미지 정보를 볼 수 있다.



그림 7. 나의 가족 정보 확인 화면

사진 정리함의 모든 사진과 연도별 분류는 EXIF 정보에 따라 자동 갱신 및 분류가 이루어지고, 이벤트별 분류는 사용자의 직접 입력 및 선택 방식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벤트 추가 시 하단에 위치한 슬라이드 탭을 올려 추가할 수 있고 삭제를 원할 때는 분류 탭을 밀어서 정리할 수 있다.



그림 8. 사진 정리함의 이벤트별 사진 추가 화면

앨범 인화를 원한다면 [그림 9]과 같이 하단의 앨범 인화 탭을 터치하여 만들어진 앨범 중 선택하거나 카드에 이미 담겨 있는 앨범을 결제할 수 있다.



그림 9. 앨범 인화를 위한 선택 및 결제 화면

도움말, 개인 정보, 문의하기, 추천하기로 이루어진 설정 탭에서는 도움말을 통해 앱 사용 방법을 익히거나 개인정보 페이지에서 나의 프로필 사진이나 문구를 편집할 수 있다. 또 앱의 오류나 관련 문의 사항을 문의하기를 통해 상담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SNS를 통해 앱을 추천할 수 있다.



그림 10. 설정 탭의 개인 정보 입력 화면

V. 결론

본 연구에서는 최근 가족 구성원들 사이에서 모바일 폰을 이용하여 아이의 사진을 공유할 때 나타나는 문제점과 요구사항을 사용자 조사를 통해 파악하고, 그 니즈에 근거하여 가족 구성원들이 찍은 사진을 특정한 공간에 모아 정리하고 모든 구성원이 직접 모바일 앨범을 편집할 수 있는 가족 공동 관리형 사진 공유 모바일 앱의 UI를 설계하였다. 파일럿 인터뷰의 분석 결과에 근거하여 선정된 6명의 사용자 조사를 통해 각 이벤트별로 사진을 정리하거나 앨범을 제작할 수 있는 이벤트별 앨범 생성 기능과 하나의 앨범을 기준으로 가족들이 함께 제작하고 공유할 수 있는 앨범 공유 기능, 손쉽게 인화가 가능한 인화 앨범 제작 기능을 특화된 앱의 기능으로 꼽았다. 가족 공동 관리형 사진 공유 모바일 앱은 아이에 대한 관심이 유달리 커진 현대의 핵가족 사회에서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기능들을 사용자가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UI 설계 및, 메뉴별 기능 및 화면을 정의하였지만 사용자 조사 과정에서 가족들끼리 공유하는 아이의 콘텐츠 중 사진 외에도 동영상도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되었기 때문에 향후 더욱 발전된 형태의 모바일 앱 제안을 위해서는 동영상 관리

기능을 포함한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참 고 문 헌

- [1]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417597>
- [2] http://www.etnews.com/news/device/device/2810484_1479.html
- [3] 김종길, 박수호, “디지털시대의 ‘가족혁명’:신화인가 현실인가?”, 한국사회이론학회, pp.143-174, 2010.
- [4] 장철진, *그룹 사용자를 위한 대용량 디지털 사진 관리 방법론*, 부산대학교, 2010.
- [5] Japan Electronics and Information Technology Industries Assoc. Digital still camera image le format standard (EXIF) version 2.2, 2002.
- [6] 최재용, 원지섭, 이수안, 김진호, “스마트폰에서 계층 모델 기반의 사진 자동 분류 및 사진 탐색기”, 한국정보과학회, 제18권, 제9호, pp.647-653, 2012.
- [7] 김원 외 7인, *2011년 인터넷이용실태조사*, 한국인터넷진흥원, 2012.
- [8] 최두진, 정부만, *2011년 정보격차 지수 및 실태조사*, 한국정보화진흥원, 2012.
- [9] 정승호, 윤정희,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UX&UI 디자인프로젝트*, 정보문화사, 2011.
- [10] M. McPherson, L. Smith-Lovin, and J. M. Cook, “Birds of a Feather: Homophily in Social Networks,” *Annual Review of Sociology*, Vol.27, pp.415-433, 2001.
- [11] 전범수, “SNS 자기 노출 집단별 동질성 인식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2권, 제12호, 2012

저 자 소 개

정 유 미(Yu-Mee Chung)

준회원



- 2008년 2월 : 강남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 시각디자인전공(디자인학사)
- 2013년 3월 ~ 현재 : 이화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 UX디자인 전공

<관심분야> : UI/UX디자인

최 중 훈(Jong-Hoon Choe)

정회원



- 2000년 2월 : 서울대학교 산업디자인과 (BFA)
- 2005년 5월 : New York University, Interactive Telecommunications(MPS)
- 2010년 3월 ~ 현재 : 이화여자대학교 영상디자인전공 조교수

<관심분야> : UI/UX디자인